



5월 4일
화요일

보도자료



실국	식량원예과	과장	박철승	팀장	정원진	☎	286-6470
----	-------	----	-----	----	-----	---	----------

전남도, 코로나19 대응 봄철 농촌일손돕기 중점 지원

- 5. 12~6.15일까지 마늘·양파수확 등에 모든 공직자, 군부대, 농협 등 참여 -

전라남도는 모내기, 마늘·양파 수확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5. 12일부터 6. 15일까지를 중점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한다.

우선 지원 대상과 지원 농작업은 영농작업이 어려운 홀로 사는 농가, 고령·장애인 농가 등으로, 기계화가 어려운 양파·마늘·매실 수확 작업과 과실 숙기, 봉지 씌우기 등이다.

전라남도는 본청과 사업소, 시·군 모든 공직자가 1회 이상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해 주도록 요청했으며, 반드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일손돕기를 위한 이동과 농작업 시 교통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어 농촌인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일 군부대와 농협 등 유관기관에도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철승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내기, 마늘·양파 수확 등 다양한 농작업이 봄철에 집중돼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며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도록 농번기 일손 돕기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